

<중국 현대명작의 세계> 기말 보고서

삼과 죽음, 그 역설의 세계

= 『허삼관 매혈기』

2003. 12.15.

중국 현대명작의 세계

전 형 준 선생님

인문대학 2002-10081

김 진 수

■ 서 론

■ 본 론

1. 매혈, 삶과 죽음의 역설

1.1 피, 그리고 매혈(賣血)의 의미

1.2 매혈, 그 안에 담긴 역설

2. 허삼관의 매혈에 담긴 두 가지 역설

2.1 허삼관 자신의 측면에서- 두 개의 자아

2.1.1 허삼관 자신을 위한 매혈

2.1.2 확장된 자아로서의 아들들을 위한 매혈

2.2 공동체의 측면에서- 화해와 재생

2.2.1 어그러짐

2.2.2 ‘속죄양’으로서의 허삼관

3. 허삼관의 매혈 여로- 극적 전개와 구조를 중심으로

■ 결 론

■ 텍스트 및 참고문헌

■ 서론

세계의 참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고대로부터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역설은 없어서는 안 될 수사(修辭)였다. 그것은 진리가 하나의 명제로서 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적인 현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상호성까지도 설명해낼 때 비로소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변증법은 대립적인 현상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사유 방법이었으며, 그것의 수사적 형태가 바로 역설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참된 모습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인 종교와 문학, 그리고 철학에서 역설이 빠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영역에서 역설은 세계의 참된 모습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는 역설이 기독교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정의라 하였고, 신비평가들은 역설이 시의 본질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종교적 명법(明法)들이나 문학적 수사(修辭) 또는 철학적 명제들이 역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역설 안에서 우리의 정신은 존재와 무, 본질과 존재, 현상과 실체, 무지와 지식, 지배와 복종, 의무와 행복 사이의 정적인 대립을 넘어선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삶은 그 자체로 삶이고, 죽음도 죽음일 뿐이다. 그러나 삶은 죽음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죽음도 마찬가지로 삶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삶은 삶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존재하며, 죽음 또한 삶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사유의 성격을 가리켜 헤겔은 ‘역동적 초월성(dynamic transcendence)’이라 했거니와 그 역동적 초월성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 바로 역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 속에서 삶과 죽음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허삼관 매혈기>는 바로 그러한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의문에 대한 답 역시 죽음과 함께 삶을 이해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 본 론

1. 매혈, 삶과 죽음의 역설

1.1 피, 그리고 매혈(賣血)의 의미

<허삼관 매혈기>에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제목 그대로 주인공 허삼관이 피를 파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 있어서 매혈은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소재이자, 동시에 플롯 전개의 핵심이 된다.

이 작품에서 피는 ‘힘’이고 ‘생명’이다. 피가 열정이나 힘, 생명 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이어져 온 원형적 상징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피=힘, 생명’의 등식은 융(C. G. Jung)의 집단 무의식이나 노스롭 프라이(N. Frye)의 ‘일반 시민의 상징체계’를 넘어선다. ‘피=힘, 생명’의 등식은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작품 전면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피가 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파는(賣) 행위’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도 안 팔아 봤으면서 무슨 뼈대가 튼튼하다는 소릴 하느냐?”(30쪽)는 할아버지의 말에서 그 최초의 도식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튼튼하다는 것은 피를 파는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처음에 그 사람이 1년 동안이나 성안으로 가서 피를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하더라구. 혹시 그 사람 몸이 성하지 않은가 해서 말이야.”(16쪽)라는 계화 어머니의 말에서 이는 ‘피를 팔아보지 않은 사람 =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등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피를 안 팔아본 사람은 모두가 몸이 부실한가요?”(17쪽)라는 허삼관의 물음에 대한 삼촌의 긍정에 이르면 우리는 이 소설의 공간에서 위의 등식이 하나의 일반론으로 굳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피를 파는 것은 그 ‘힘’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허삼관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등식을 그의 내면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 마을에서는 누가 피를 팔면 그 건 그 사람 건강의 보충수표라고 했다구.”(189쪽)라는 그의 말은 그 맥락에서 볼 때 할아버지 말의 단순한 인용이 아닌, 허삼관 자신에게 있어서 이미 승인된 명제이다.

그러나 피는 ‘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피가 피를 ‘파는(賣)’ 행위와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판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돈을 얻는다’는 것까지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는 곧 ‘돈’이다. ‘피=돈’의 등식은 작품의 플롯과 관련해서 볼 때 ‘피=힘’보다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땅 파서 버는 돈이야 겨우 굶어죽지 않을 정도”(30쪽)의 시대에서, 피는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는 교환가치를 지닌 재화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계화와 결혼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근룡이가 피를 파는 것에서 우리는 “피가 바로 돈줄이네요.”(17쪽)라는 허삼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허삼관 스스로도 훗날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다. “내 몸속의 피는 바로 돈나무라구.”(189쪽)

피를 ‘팔 수 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아온 그가 피를 ‘돈나무’로 인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허삼관이 피를 팔수록 그의 생명의 불씨는 점점 희미해져간다. ‘생명’인 피를 파는 것이 곧 ‘생명을 파는 것’임을 작품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혈(賣血)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 적어도 그것이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작품에 두루 나타난다. 허삼관이 삼촌과 나눈 매혈에 관한 첫 대화에서 삼촌은 “피 팔러 갔다가 목숨까지 팔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17쪽)라고 말한다. 이는 매혈이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근룡이의 죽음에 이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허삼관은 저와 일락이 그리고 저희 집을 위해서 목숨조차…….”(115쪽)라는 허옥란의 말에서 말줄임표 안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오늘 이 돈은 내가 피를 팔아 번 돈이라구. 이 돈은 쉽게 번 돈이 아니예요. 내 목숨하고 바꾼 돈이라구.”(170쪽)라는 허삼관의 말이다. “저 아이가 이제는 내 남편 피까지 팔라고 하네. 내 남편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한대구요. 하소용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아이라구요.”(181쪽)라는 하소용 부인의 말에서 ‘주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허삼관이 백리(百里)의 여관에서 만난 노인은 “또 피를 팔면 그건 목숨을 팔아넘기는 거 아니요?”라고 허삼관에게 묻는다. 이에 대해 허삼관이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도” 피를 팔아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매혈이 죽음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허삼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일정부분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5쪽)

1.2 매혈, 그 안에 담긴 역설

허삼관이 살아가기 위해 ‘생명’이자 ‘힘’인 피를 파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생명을 ‘소모’해가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살기 위해 죽는(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역설이다. 이 역설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바로 근룡이다. 근룡은 살아가기 위해서 피를 파는 것이 어찌서 역설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룡이가 죽은 뒤에 허삼관이 흘리는 눈물은 단지 죽은 근룡이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역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인식에서 오는 비애의 눈물이다. 허삼관의 눈물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매혈(賣血)은 삶과 죽음의 역설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재이며, 허삼관의 매혈 여로는 그 역설의 형상화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 충동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로 불렀다.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리비도인데, 이는 사랑과 섹스를 통해 표출된다. 타나토스는 파괴의 경향성이며 따라서 죽음을 지향하는 본능이다. 이 두가지 본능은 인간 안에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프로이트는 ‘본능의 이원론’이라 했다. 그의 ‘본능의 이원론’은 삶과 죽음의 역설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삶’과 ‘죽음’ 그 자체는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서는 은유의 껍질속에 대부분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본능의 이원론은 그것을 벗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허삼관과 래희 형제와의 대화를 한 예로 들어보자.

“피를 팔고 나면 몸이 망가지지 않나요?”

“전혀.”

허삼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저 두 다리의 힘이 쭉 빠지는 것뿐이야. 여자 배에서 막 내려올 때하고 똑같지.”(295쪽)

허삼관은 피를 팔고 난 이후의 상태가 “여자 배에서 막 내려올 때”, 곧 섹스 이후의 상태와 똑같다고 말한다. 위의 대화를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입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의 본능(Thanatos)	삶의 본능(Eros)
파괴적 에너지	리비도
잔인성, 공격, 자살	사랑, 섹스
‘피를 팔고나면’	‘여자 배에서 내려올 때’

이 은유만큼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에 대한 은유들이 한 장면 안에서 교차하고 있는 것은 작품 여기저기에서 더욱 찾아볼 수 있다.

- 근룡이는 피를 팔아서 ‘엉덩이가 큰’ 계화를 얻고자 한다.(30쪽)
- 허삼관이 처음 피를 팔러 갔을 때, ‘무슨 영인가 하는 그 여자’의 뺨스일지도 모르는 이 혈두의 ‘알록달록한 속옷’을 본다.(25쪽)
- 허삼관이 두 번째 피를 팔러 갔을 때, 피를 팔기 위해 이 혈두에게 바치는 백설탕의 보드랍기가 처녀의 피부 같다고 묘사된다.(107쪽)
- 허삼관이 세 번째 피를 팔러가면서 임분방과의 관계 장면을 떠올린다.(129쪽)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매혈로 나타난 파괴적 에너지가 리비도와 한 장면 안에서 교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편적인 은유들일 뿐이다. 크게 보면 허삼관의 매혈 여로는 전체가 삶과 죽음의 은유체계이다. 우리는 그의 매혈 여로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물줄기가 서로 교차하며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2. 허삼관의 매혈에 담긴 두 가지 역설

이 소설 속에서 삶과 죽음의 역설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드러나 있다. 하나는 허삼관 개인에게서, 다른 하나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타난다. 전자는 그가 일락이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또 그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피를 파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후자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족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이웃과도 화해를 하게 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허삼관의 죽음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재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2.1 허삼관 자신의 측면에서- 두 개의 자아

허삼관의 매혈은 먼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연장’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 피를 판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를 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삶을 위해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허삼관의 삶은 그 자체로 역설의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복잡한 양태로 드러난다. 그것은 이 소설에서 허삼관의 자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는 당연히 허삼관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변형된 자아’ 또는 ‘확장된 자아’로서의 그의 아들들이다. 이는 허삼관의 삶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매혈도 두 가지 층위를 가진다.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허삼관 자신을 위한 매혈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된 자아’로서의 그의 아들들을 위한 매혈이다. 전자는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주로 나타나고, 후자는 후반부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이 둘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2.1.1 허삼관 자신을 위한 매혈

허삼관이 처음 피를 팔아 허옥란을 얻는 것은 그가 그러한 의도를 미리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피를 팔아 얻은 돈으로 아내를 얻게 된 셈이다. 방 철장이 아들의 치료비로 몰수해 간 가재(家財)들을 찾아오기 위해 피를 파는 것도 허삼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 번째 매혈에서부터는 매혈로 번 돈의 쓰임이 타자(임분방)에게로 확대된다. 그런데 이 때의 타자(임분방)는 어디까지나 허삼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타자이다. 그가 피를 팔아 얻은 돈으로 임분방에게 보신(保身) 약재들을 보내준 것(129쪽)을 ‘희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그녀는 어디까지나 허삼관의 욕망이 투영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피를 팔러 가는 길에 그는 임분방과의 관계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녀를 위해 보신 약재들을 사 줄 것을 결심한다. 앞에서 본 프로이트의 본능의 이원론에 따르면 이것은 그의 삶의 본능(Eros)이 죽음의 본능(Thanatos)을 불러오는 것이다.

2.1.2 확장된 자아로서의 아들들을 위한 매혈

허삼관은 임분방에게 보신 약재들을 보내줄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돈을 허옥란과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 쓸 것이라 생각한다.(129쪽)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락이를 제외한 아들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다. 매혈로 번 돈을 쓰는 것에서 일락이를 제외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여기서 그에게 아들은 자신의 욕망(삶의 본능)이 투영된 ‘확장된 자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행동의 기저(基底)에 깔린 그의 관념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허삼관의 그러한 행동에는 유교적 불사(不死)의식이 깔려 있다. 유교에서는 육체적 생명이 그의 자손을 통해 이어진다고 보았다.¹ 이것은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낳았다. 유교적 가족 관념은 가부장적 가족관념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핵심은 혈연을 중시하는 관념이다. 순우리말에서도 혈연을 ‘핏줄기’라 하는데, 이것은 가족이 ‘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곧 자손이란 ‘자신의 피를 이어받는 존재’라는 유교적 가족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답는 것’이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답았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답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서 난 것이라는 표징이 된다. 계화 모녀에게 삼촌은 “계화가 자랄수록 엄마를 답아 가는구나.”(15쪽)라고 말한다. 계화의 어머니는 허삼관에게 “자기 아버지를 쏘옥 뺏구먼.”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차 한마디 한다”.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네.”(16쪽) 계화 어머니의 이 말에 이어 허삼관은 “엉덩이가 툭 다 정말 큰” 계화의 모녀를 본다. 일견 이야기와 별 관계없어 보이는 이러한 서술들이 그 장면의 밀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작품 초반부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후에 ‘답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

1 중국 전통에서 유교에서만 자손을 통한 불멸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곤(鯀)의 신화에서도 동일한 모티프가 등장한다. 홍수를 막다가 상제(上帝)의 명으로 죽임을 당한 곤은 우(愚)로 다시 태어나 생명을 이어간다. 시간 속에 놓인 유일한 개체인 곤은 후손을 통하여 영생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공(禹公)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공은 자신의 생명이 후손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는 오히려 자연이 유한하고 인간의 생명이 무한함을 깨닫고 있다.(袁陽, 중국의 종교문화, 박미라 옮김, 길, 2000, p.60-63.) 그러나 허삼관이 이들과 달리, 유교적 의미에서 불사(不死)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문의 존속’이라는 명백한 유교적 상징기호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이 ‘답는다’는 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다음에서 인용한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삼관은 늘 허옥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일락이는 나를 답고, 일락이는 당신을 답았는데, 삼락이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답은 거지?”
허삼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 아들 중 일락이를 가장 좋아한다는 뜻이었는데...(75쪽)

표면상으로 자기를 답지 않은 일락이가 “열 받게도 다른 놈의 자식으로 판명되고 만 것”을 아는 허삼관이 일락이를 자기와 답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락이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말이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장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허옥란과 일락이가 답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닮는 것’ 만큼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이와 동일한 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성(姓)이다. 유교적 가족 관념에서 성(姓)은 ‘닮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같은 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 허삼관이 허옥란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허삼관의 의식에 깔린 유교적 불사(不死)의식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님께서는 옥란 씨 하나뿐이지요? 만약 옥란 씨가 하소용에게 시집을 가 버리면 아버지 댁 허씨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날 아이는 하씨 성을 갖게 될 테니까요. 저에게 시집을 오면, 저야 원래 성이 허씨니까 태어날 아이들도 모두 허씨 성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댁 자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42쪽)

옥란의 아버지도 허삼관과 동일한 관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네 말이 맞구면, 내 딸이 하소용에게 시집을 가면 우리 허씨 가문은 대가 끊기게 되지. 그러나 내 딸이 자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두 허씨 집안이 모두 대를 잇게 되는 거라구.”(43쪽)

이는 하소용도 마찬가지다.

“거 무슨 허튼소리요. 천하의 이 하소용이가 어찌서 당신 집 데릴사위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요? 그럼 나중에 내 아들들의 성이 모두 허가? 말도 안되지.”(44쪽)

이러한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설의 배경에서 대를 잇는 것이 각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맥락에서 성(姓)이라는 것이 이름의 일부를 넘어 가문의 종속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허삼관이 같은 성(姓)을 공유하는 것과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닮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관념에 깔린 유교적 불사(不死)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와 같은 성(姓)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기를 닮은 일락이와 삼락이는 허삼관의 삶의 본능이 투영된 ‘확장된 자아’이다. 일락이는 그와 같은 성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허위이다. 뿐만 아니라 일락이는 자신을 닮지도 않았다. 그것은 일락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존재임을 뜻하며, 따라서 허삼관은 일락이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

³ 물론 이것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 관념에서 볼 때만 그렇다. 같은 모계혈통이라면 성(姓)이 다르더라도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에 그에게는 “근롱이하고 같은 아들 둘” 밖이다.(128쪽) 만약 일락이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라대가리 같은 짓”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점점 ‘자라대가리’가 되어간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에 숨어 있는 역설이다. 그것은 숨은 그림 찾기에서처럼 매혈 여로에 숨어 있다. 허삼관의 매혈 여로는 이락이와 삼락이로 상징되는 허삼관의 ‘확장된 자아’가 그의 안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피’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일락이에게까지로 뻗어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일락이까지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 허삼관에게 있어 극히 어려운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바로 이 때문에 작가는 허삼관을 ‘매혈 여로’라는 길 위에 세워 놓았다. 매혈 여로를 거치며 허삼관은 조금씩 자신의 틀을 깨어간다. 그 틀은 일락이가 하소용의 혼을 부르고 난 후에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 그가 칼로 긁는 것은 자신의 몸이자 동시에 자기를 가두어 두고 있던 혈연 관념이다.

일락이는 결코 허삼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락이는 결국 허삼관의 아들이 된다. 그것은 허삼관이 자기의 유전(遺傳)의식을 형이상학적 측면으로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에 이르러 그는 보다 고양된 단계에서의 불사(不死)를 이루게 된다.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일락이를 위해 허삼관은 피를 판다. 그로써 얻은 돈 30원을 일락이에게 쥐어 주면서 “이락이가 널 찾아가면 10원이나 15원 쯤 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허삼관에게 일락이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이락이(또는 이락이로 대표된 그의 ‘본래의 아들들’)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삼관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인식의 틀을 깨고 자기의 자아를 확장해가는 것, 이것은 그의 삶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피’가 필요하다. 삶의 확장이 매혈 여로 속에 있다는 점, 더 정확히 말해서 피를 파는 과정, 그의 생명의 불이 점점 희미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그의 죽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의 모든 삶의 확장은 그 자체로 죽음의 확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허삼관에게 있어 삶이 죽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삶 그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공동체의 측면에서- 화해와 재생

2.2.1 어그러짐

이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역설의 두 번째 양태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허삼관의 죽음은 기존의 어그러져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고 가족의 풍요를

가져온다. 나아가 이웃과의 화해도 가져오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 공동체의 재생(再生)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소설에 나타난 또 다른 삶과 죽음의 역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삼관 자신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해석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허삼관 개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의 역설은 허삼관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그것이 그의 무의식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공동체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의 역설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출발에는 ‘어그러짐’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하소용이 허옥란을 ‘덜친’ 것에서부터 시작된 관계의 어그러짐이다. 그 어그러짐은 불화(不和)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불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불화는 일락이가 허삼관을 닮지 않고, 하소용을 닮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5절에서부터 드러나지만, 사실상 그 이전의 이야기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5절 이전의 이야기들은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불화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불화의 관계는 하소용-허삼관, 허삼관-허옥란, 하소용-허옥란, 나아가 일락이-하소용, 일락이-허삼관으로 네 명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여기에서부터 허삼관네-허옥란네로 갈등의 주체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런 불화의 계기는 당연히 하소용이 허옥란을 범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곧 금기(禁忌)에 대한 침범이다. 남녀 간의 비합법적 성관계, 그 중에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금기는 금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예로부터 여자가 결혼전에 임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결혼전에 임신한 여자를 죽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금기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금기라는 소재 그 자체가 이미 삶과 죽음의 역설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다. 금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생겨난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⁴ 즉 인간은 살기 위해 금기를 만들어내었지만, 또한 그것을 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기에 내재한 삶과 죽음의 역설이다. 금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그것이 신화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 소설에서 심판의 대상은 허삼관이며, 심판이 극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허삼관의 매혈 여로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기를 깨뜨린 것은 허삼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소용(나아가서는 허옥란까지도)이 깨뜨린 것이다. “9년 동안이나 자라대가리 노릇”을 해 온 허삼관은 오히려 그 피해자이다. 금기를 깨뜨린 당사자들에게가 아니라 제 3자에게 그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불합리 속에서 삶과 죽음의 역설이

4 그들은 금기의 사물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모순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들은 그러한 금기를 매우 범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금기를 범하여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王强, 금기, 범하고 싶은 욕구, 채옥자 옮김, 비전코리아, 2002, p.106-107에서 프로이트의 말을 재인용)

드러난다. 허삼관의 죽음이 공동체의 삶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2.2.2 '속죄양'으로서의 허삼관

이렇게 볼 때 허삼관은 이 작품에서 속죄양의 원형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희생 제의에서 생겨난 속죄양의 모티프는 종족의 부패를 신성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가시켜 이 속죄양을 죽임으로써 종족의 자연적·정신적 재생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에 초점이 있다.⁵ 하소용과 허옥란의 부패로 인해 생겨난 불화가 허삼관에게 전가(傳家)되고, 그가 죽음으로써 공동체(허삼관의 가족)가 화목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은 속죄양 모티프의 맥락과 일치한다.

허삼관이 생사(生絲)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설정도 속죄양으로서의 그의 운명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 생사공장은 누에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는 곳이다. 생사공장에서 누에는 자기 안에 있는 실을 뽑아내는 대가로 먹이를 얻고 살아간다. 누에가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실을 뽑아낼 수 없을 때 (적어도 생사공장에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이는 허삼관이 자기 속에 있는 피를 팔아 가족들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 대가로 허삼관 자신은 죽어가는 것과 대등한 의미함을 가진다. 그가 공장에서 받는 장갑으로 가족들이 옷을 지어 입는 것(66쪽)은 그가 세 번째 팔았던 피로 가족들이 옷을 지어 입는 것(139쪽)과 대응된다. 래희·래순 형제가 누에 고치를 싣고 가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291쪽), 허삼관과 같은 O형을 가졌다는 사실⁶은 그들이 허삼관과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세대에서도 매혈이 이어질 것이라는 암시이다.

그러므로 허삼관의 매혈 여로는 그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동시에 공동체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은 그 길의 종착점에 해당하는 29절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허삼관이 예순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이제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들은 생활은 마치 허삼관의 건강과 같아서, 허삼관은 누굴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너무 건강해.”(315쪽)

그러나 허삼관의 가족들이 누리는 '건강한 생활'은 허삼관의 죽음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 허삼관의 죽음은 다분히 상징적인데, 그것은 그가 '생명'인 피를 더 이상 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피는 이제 “가구 칠”에나 쓸 수 있는 “돼지 피”가 되었다. 허삼관의 죽음으로 공동체가 재생과 번영을 누리는 것, 이것이 허삼관의 매혈 여로에 담긴 삶과 죽음의 역설이다.

5 이상우 외, 문학 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2, p.234

6 O형은 다른 모든 혈액형에 수혈(輸血)할 수 있지만, 다른 혈액형으로부터 수혈받을 수는 없다. 이들이 모두 O형으로 설정된 것도 이들의 운명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다.

3. 허삼관의 매혈 여로- 극적 전개와 구조를 중심으로

<허삼관 매혈기>에 있는 삶과 죽음의 역설은 허삼관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확장이 죽음의 확장을 동반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공동체가 화목과 번영을 누린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소설에서 이 두 가지 역설은 ‘매혈 여로’라는 플롯을 입고 나타난다. 허삼관의 매혈 여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삶과 죽음의 역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혈 여로를 만들어가는 작가의 숨은 의도를 짐작할 수도 있다.

처음에 허삼관은 일락이가 하소용을 닮았다는 소문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아들 셋을 세워놓고 웃어보라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 위로한다. “일락이가 날 닮지 않은 것은 상관없어. 자기 형제들하고만 닮았으면 됐지.”(55쪽) 그러나 곧 그가 “혹시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되면서(56쪽) 이 때부터 일락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된다. 6절에서 여섯 개의 삽화로 보여주는 허옥란에 대한 허삼관의 심리적 거리는 일락이에게까지 점점 확대되어간다. 허삼관이 흘린 상심에 찬 눈물(75쪽)은 그 거리감을 느낀 데서 오는 눈물이다.

그 상심은 일락이가 방 철장의 아들을 때려눕힌 사건 이후에 드디어 표면화된다. “일락이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84쪽) 이제 그들을 잇고 있는 것은 일락이가 9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른 정(情) 뿐이다.(84쪽) 일락이에 대한 허삼관의 심리적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도를 더해간다. 방 철장이 집을 들어내러 왔을 때에 허삼관에게 일락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100쪽) 존재가 된다. 다음날 허삼관이 이락이와 삼락이를 불러세워 놓고 하소용의 딸들을 강간하라고 시키는 것은 일락이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 전이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임분방과의 사건이 있는 후에도 그 거리는 점차 커져간다. 방씨가 자식이 맺이냐고 물었을 때, 허삼관은 “근롱이하고 같아요. 아들 둘이오.”(128쪽)라고 대답하면서 일락이를 그의 ‘아들’에서 제외시킨다. 그가 세 번째 매혈로 얻은 돈에서 임분방에게 쓰고 남은 30원을 “이락이와 삼락이를 위해서 써도 괜찮고 허옥란을 위해서도 괜찮지만, 일락이만은 제외하기로”(129쪽)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 일락이는 지금 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임분방 사건은 상황이 호전될 전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의도를 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부부간의 거리를 증가시키고, 가정의 불화를 몰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임분방 사건은 허삼관과 허옥란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허삼관의 의도가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허옥란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었던 허삼관은 임분방 사건을 통해 비로소 허옥란의 높이로 내려온다.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상황이 역전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임분방의 남편이 찾아온 것을 보았을 때 “허삼관은 속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134쪽) 그리고 옥란이 임분방 사건에 대

한 이야기를 꺼낼 때 “허삼관은 고개를 떨군 채 불멘소리로 대꾸”(139쪽)한다. 이들의 심리적 높이는 17절 끝에 가서야 비로소 대등해진다. “됐어, 됐다구. 앞으로 다시는 그 이야기 안 할게.”(142쪽) 이것은 그들 사이에 있던 심리적 채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뜻한다.

임분방 사건은 일락이에 대한 허삼관의 태도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분방과의 사건은 이후 ‘국수사건’이나 ‘하소용의 혼을 부르는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한 심리적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 문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삽입한 듯한 임분방 사건이 무게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허삼관의 일락이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허옥란과의 화해가 있어야만 했다. 일락이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기 이전에 먼저 허옥란에 대하여 토라졌던 것처럼(6절) 일락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기 전에도 먼저 옥란과의 심리적 거리가 해소되어야 했던 것이다. 임분방 사건은 허삼관의 심리적 비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구성이다.

2장이 일락이에 대한 허삼관의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3장은 2장의 끝부분에서 보여준 화합의 실마리가 확대되어가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허삼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화되던 허삼관-일락이의 거리가 ‘국수사건’에서 일락이에 의해 커지면서 독자는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곧 둘 사이를 그 이전보다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한 잠정적인 긴장일 뿐이다. 일락이가 돌아오지 않자 허삼관은 차츰 걱정되기 시작한다. 어두워지는 하늘(185쪽)은 시간적 변화를 넘어 그의 심리적 변화를 암시한다. 일락이가 돌아온 후에 허삼관은 일락이에게 욕을 퍼붓는다. 하지만 그 욕은 오히려 따뜻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그가 일락이를 업고 있기 때문이다.(187쪽) 승리 반점에 다다랐을 때 그의 “은화한 목소리”(187쪽)는 허삼관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함을 보여주며, 자신이 피를 팔아 얻은 돈으로 일락이에게 국수를 사 주는 것은 이후 일락이가 그의 매혈의 목적(‘확장된 자아’로서의 그의 아들)이 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일락이는 허삼관의 ‘아들’은 아니다. 허삼관이 일락이에게 바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그가 “넷째 삼촌에게 느꼈던 감정만큼만”(199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락이가 ‘넷째 삼촌’으로 대유되는 혈육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이어 그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하소용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에 하소용은 ‘죽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서 진 선생’은 의원의 옷을 입고 나타난 작가이며, 하소용을 친 트럭을 몬 기사 또한 작가 자신이다. 바로 앞의 ‘국수 사건’으로 혈육의 테두리 안으로까지 들어온 일락이를 이 시점에서 그의 아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작가는 이러한 플롯을 구상하였다. 일락이와 허삼관이 부자(父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혈관이 이어져서 피가 섞여야 하는데, 하소용의 ‘존재’가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소용이 죽어야만 허삼관이 혼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비로소 그들은 부자(父子)

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소용의 죽음은 “인민을 위한 독초”가 제거된 것(197쪽)이 아니라, 그들의 결합을 위한 독초가 제거된 것이다. “그 트럭을 몬 기사는 정말이지 큰 일을 한”(197쪽) 것이다.

하소용의 혼을 부르는 사건은 일락이에 대한 허삼관의 심리적 거리가 소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일락이가 하소용의 혼을 부르도록 설득하기 위해 허삼관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이 절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락이가 허삼관을 부르는 것(‘아버지’)은 모두 다섯 번이다. 공교롭게도 허삼관이 일락이를 ‘아들’로 부르는 것도 다섯 번이다. 이것까지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제 허삼관은 그들의 관계를 ‘피’로써 공언한다. 허삼관이 목숨과도 같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피’로서의 일락이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그들은 완전한 화합을 이룬다.

24절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야기는 내리막으로 접어든다. 이제 가장 주된 표면적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부수적 인물들과의 화해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으로 와야 할 이야기는 당연히 허옥란과의 화해일 것이다. 앞의 17절에서 임분방 사건으로 허삼관과 허옥란이 양자 간에 있던 심리적 채무를 다 이행하기는 했지만, 이로써 그들의 불화가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소용이 죽고, 허삼관이 일락이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정된 배경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다. 가족 비판 대회를 통해 허삼관과 허옥란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두 사람은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된다. 허삼관이 그의 아내를 위해 홍소옥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222쪽) 이를 목격할 수 있다. 다음의 허삼관의 말은 그가 허옥란과의 완전한 화해와 합일(合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너희들이 만약 너희 엄마를 증오한다면, 나도 마땅히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도 너희 엄마랑 똑같은 놈이니까.”(231쪽)

...

“당신과 결국은 같아.”(232쪽)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허삼관의 온 식구가 화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모 주석의 강령 아래 농촌으로 가서 “재교육”을 받던 일락이가 돌아오는 26절부터 분위기는 갑자기 어두워진다. 일락이의 “피골이 상접하고 낮빛이 누렇게 뜬”(235쪽) 모습은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분위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내어주는 말이다. 초췌한 일락이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때 허삼관은 일락이를 위해 피를 판다. 그것은 이미 일락이가 자기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며, 매혈은 그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는 일락이의 생산대장을 접대하기 위해 또 피를 팔아 “고기와 생선, 담배와 술”(251쪽)을 산다. 허삼관이 죽음의 위기

를 느끼면서도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은 “이락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255쪽) 26절에는 허삼관이 두 번이나 매혈을 하고, 또 근룡이가 매혈 중에 죽는 것까지 매혈에 관한 에피소드가 세 개나 등장한다. 여기에서 허삼관의 매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26절 이전에는 한 절에 한 번씩 매혈이 일어날 뿐이다; 1절, 11절, 15절, 20절 참고)

27절에서 일락이가 쓰러지면서 허삼관은 또 피를 팔게 된다. 이렇게 26절에서부터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허삼관의 매혈 여로는 28절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 소설에서 화해의 정점은 허삼관이 일락이를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24절이지만, 매혈 여로의 정점은 일락이를 살리기 위해 피를 팔며 상해로 가는 28절이다. 28절에서 생략과 요약으로 장면의 전환이 빨라지고, 허삼관이 피를 팔다가 두 번이나 쓰러지면서 그의 매혈 여로는 긴박감을 더해간다. 그 긴박감은 래희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여 28절 마지막에 일락이와 허옥란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끝이 난다. 그 긴장감은 허삼관이 상해의 병원에서 비어 있는 침대를 보고 근룡이를 떠올리며 일락이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고조되었다가 일락이를 만났을 때 흘리는 비로소 해소된다. <尾註>

이 소설의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는 새로운 역설이 생겨난다. 29절에 등장하는 허삼관은 ‘생명’인 피를 더 이상 길어낼 수 없는 ‘마른 우물’이다. 그가 길어내는 것은 기껏해야 “가구에 나 칠”할 “돼지 피”(338쪽)일 뿐이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이것은 허삼관의 죽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허삼관은 운다. 지금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근룡이가 죽었을 때 흘렸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근룡이가 죽었을 때의 눈물이 삶과 죽음의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피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삶과 죽음의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자에게는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허삼관은 죽었다.

이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승리반점에서 그가 먹고 싶은 것은 허옥란의 거둬진 물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간볶음하고 황주”(323쪽)뿐이다. 그것은 옛날의 ‘살아있는 자기’로 돌아가고 싶은 허삼관의 욕망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삶’이다. 그 삶은 죽음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삶을 얻고자 한다. 돼지간볶음과 황주는 그에 게 바로 그러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 결 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삶’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직선을 더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가령 죽음이라면 죽음이라는 어떤 역방향의 요소에 의해서 지탱되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반대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중에서)

위에서 하루키는 허삼관의 삶이 보여준 삶과 죽음의 역설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허삼관의 삶은 죽음에 의해 ‘지탱되어’ 있었으며, 그의 삶은 죽음을 ‘더듬어 가는’과정이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삶의 반대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였다. 이것은 분명 역설이지만, 그 역설 속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역설 속에서 삶과 죽음은 초월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삼관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의 역설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매혈 여로가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닌, 사랑의 여로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난 허삼관을 만나게 된다. 허삼관의 삶이 죽음을 내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은 결코 비장하지도 않다. 그것은 그의 매혈 여로가 ‘웃음’ 속에 곱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상황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다. 사랑과 웃음, 이 두 가지는 자칫 사변적이고 무거웠을지도 모르는 그의 매혈 여로를 곱게 밝히고 있다.

<尾註> “27절에서 일락이가 쓰러지면서 허삼관은 또 피를 팔게 된다. 이렇게 26절에서부터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허삼관의 매혈 여로는 28절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게 된다.” (p.15)

구성에 있어서 26절과 28절은 ‘문제성’을 가진다. 그 ‘문제성’은 이들 절의 장면 구성에서부터 알 수 있다. 26절과 28절의 장면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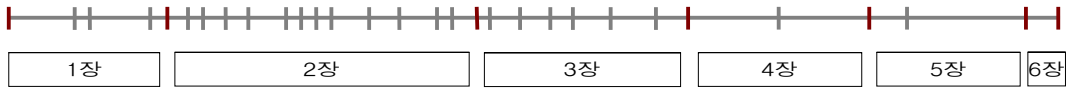
- a. 몇 년이 흐른 어느날, 일락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옴.
- b. 일락이가 열흘동안 집에서 쉬.
- c. 삼락이가 매일 집에 들름.
- d. 허옥란과 허삼관, 일락에게 돌아갈 것을 종용함.
- e. 일락이가 집을 나서고 허삼관이 따라 나섬.
- f. 허삼관이 **매혈**로 얻은 돈을 일락이에게 주고 일락이가 떠남.
- g. 이락이네 생산부장이 찾아왔다 감. 허옥란, 허삼관에게 매혈을 종용함.
- h. 허삼관, **피를 팔러** 병원으로 감. 근룡이를 만남. 근룡이가 쓰러짐.
- i. 허삼관, 대장과 술을 마심.
- j. 허삼관, 깨어나 다시 병원으로 감. 근룡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함.

<28절>

- a. 임포에 도착함. 사람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임.
- b. **피를 팔**. 반점에 들어감.
- c. 지나가는 젊은 이들과 대화를 나눔.
- d. 백리에 도착함. **피를 팔고** 쓰러짐.
- e. 여관에서 노인을 만남.
- f. 송리에 도착함. **피를 팔다가** 쓰러짐. 도로 수혈을 받음.
- g. 송림의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함.
- h. 래희 형제를 만남.
- i. ‘며칠 지나지 않아’ 래희 형제와 사이가 좋아짐. 관계가 발전함.
- j. 매혈 이야기를 전함. 물을 마심.
- k. 황점 병원에서 **피를 팔고** 반점에 감.
- l. 래희 형제가 도울 것을 자청함.
- m. 칠리보에 도착함. **피를 팔**. 반점에 들어감. 래희 형제와 헤어짐.
- n. 장념으로 가서 **피를 팔**.
- o. 상해에 도착함. 일락이와 허옥란을 다시 만남.

이렇게 두고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6·28절이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묶고 있

다는 사실이다. 25절 이하에서는 대부분 다섯 개 이하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6절과 28절에서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절로 묶여 있다. 이는 전체 텍스트의 길이에서 각각의 절이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잘 드러난다. 1절부터 29절까지 각 절의 텍스트의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이는 번역본 텍스트에 의한 대략적인 도식이다.)

위에서 보듯 이 소설의 구조는 비균일적이다. 그것은 첫째 4·5장이 각 두 개씩의 절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둘째 25, 26, 28절이 기형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25절이 길기는 하지만 ‘문제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 절이 그러나 ‘허옥란의 수난’이라는 단일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비교적 밀도 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각 장면의 전환속도도 앞의 24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26절과 28절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 절에서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26절과 28절은 이 작품의 일반적인 분절 양식을 적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26절> (26-1) a~d / (26-2) e~f / (26-3) g~j

<28절> (28-1) a~c / (28-2) d~e / (28-3) f~h / (28-4) i / (28-5) j~m / (28-6) n~o

이렇게 보면 26·28절에는 각각 3개, 6개의 절이 들어 있는 셈이다. 그것은 이들 절에서 축소와 생략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축소와 생략은 모두 이야기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26절과 28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법들과 관련이 있다.

26절에서는 에피소드들의 축소가 두드러진다. 있을 법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의 절에서라면 일락이가 집에서 보내는 열흘 내내 그가 담벼락만 바라보고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6-1)의 a~b에 있어서는 말하기(telling)를 통한 사건의 요약적 서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 이야기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그나마 요약적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조차도 일락이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진술이 전부일 뿐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다. (26-2)의 f에서 허삼관이 피를 파는 장면도 생략되었다. 여기에서 독자는 허삼관이 피를 팔았다는 것을 허삼관이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일락이에게 돈을 쥐어 준다는 정보로 추측해서 알 뿐이다.

28절에서는 생략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28-4)에서 그것은 두드러진다. (28-4)의 시작은 허삼관과 래희 형제는 ‘떠칠 지나지 않아’(294쪽) 사이가 좋아졌는 것이다. 이전의 절의 전개로 미루어보았을 때 여기에서 작가는 그들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사건을 하나쯤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생략하고 만다. 28절에서도 말하기(telling) 위주의 요약적 서술이 눈

에 많이 띈다. a의 전반부, b의 후반부, d, g, n에서 사건들이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8절에서 25절 이전의 사건진행과 비슷한 속도를 가진 곳은 (28-5) 뿐이다.

이렇듯 26절 이하에서의 긴박한 전개는 매혈 여로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25절에서 인물들간의 주요한 갈등은 모두 해소되었지만, 매혈 여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박한 전개는 개연성에 있어서 많은 허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전개는 이제 인물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혈 여로가 종착점에 이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余華, 허삼관 매월기(제 2판), 최용만 옮김, 푸른 숲, 2003

참고문헌

문학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 문학과 지성사, 2001

이상우 외,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2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중국 문화

王强, 금기, 범하고 싶은 욕구, 채옥자 옮김, 비전코리아, 2002

袁陽, 중국의 종교문화, 박미라 옮김, 길, 2000

기타

Howard P. Kainz, 헤겔 철학의 현대성, 이명준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8

Recharad Wollheim, 프로이트, 시공사, 2002